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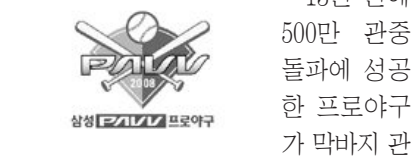
프로야구 관중 500만명 돌파...올 구단별 현황



지난달 2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기아 경기가 만원을 기록했다. 롯데는 올 시즌 21번째 만원관중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신바람' 롯데 관중몰이 주역

부산 137만여명 '최다'...광주 35만여명 '7위'



13년 만에 500만 관중 돌파에 성공한 프로야구가 막바지 관중 동원에 나섰다.

잠실-문학·광주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진 지난달 26일 3개 구장에 2만7천946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500만 관중 돌파에 성공했다.

프로야구 역사상 500만 관중을 넘어 선 해는 1995년이 유일하다. 서울 라이벌 OB 베이스(현 두산)와 LG 트윈스의 치열한 순위 싸움과 함께 전국구 구단인 롯데 자이언츠와 해태 타이거즈(현 KIA)가 4강 멤버로 합류하면서 540만6천374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지난 3월29일 대장전에 몰입한 2008 프로야구는 지난 6월20일 300만 관중을 이어, 7월27일 4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승승장구 했다.

9월 1일(수) ▲08/09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2차전 (울보르: 맨체스터Utd)(03:35-MBC ES-

합이다. 롯데는 4월1일 홈 개막전 매진 사례를 시작으로 63번의 홈 경기중 21차례 만원 관중을 기록하는 등 29일 현재 137만9천735명의 관중 동원에 성공했다.

반면 1995년 영광의 주인공 LG는 최하위에 머물면서 올 시즌 유일하게 관중이 줄었다. 지난해 90만1천172명이 경기장을 찾았지만 올 시즌은 76만525명에 그쳤다.

7년 연속 정규리그 1위에 오른 SK는 21만1천593명을 불러들여 인천 연고 구단으로는 최초로 홈 70만 관중을 돌파했고, 2위 두산은 91만8천685명을 기록해 목표치 90만을 초과 달성한데 이어 역대 최대 관중(91만4천638명)기록도 새로 썼다.

프로야구 관중유치 현황 (단위:명)

Table with 3 columns: 구단, 2007년, 2008년 (9월 29일 현재). Rows include SK, 두산, 롯데, 삼성, 한화, KIA, 히어로즈, LG, and totals.

무려한 가을 보낸 한화는 36만1천442명(지난해 32만2천537명)이 경기장을 찾아 목표로 잡았던 35만 관중을 간신히 채웠다.

4강행 막차를 탄 삼성은 37만8천661명의 관중을 동원해 지난해(33만6천936명) 보다 증가 추세지만 당초 목표치인 40만은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목) ▲08/09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2차전 (리버풀: 아인트호벤)(03:35-MBC ESPN), (인터밀란: 베르더브레넨)(07:30-MBC ESPN)



추·신·수 '이달의 선수'

한국인 타자론 첫 영예 9월 타율 0.400·5홈런

시즌 막판 불꽃 타격을 선보이며 대활약한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26·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AL) 9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다.



추신수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팀 동료 아스트루발 카브레라, 텍사스 레인저스의 헝크 블레이크,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미겔 카브레라, LA 에인절스 마크 테세이라 등 경쟁 선수들과 경쟁한 끝에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에릭 웨지 클리블랜드 감독은 추신수에 대해 "그는 우리 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완벽한 선수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팀의 승리를 도울 수 있다"고 극찬한 뒤 추신수가 올 시즌 좌투수가 나온 경기에서 종종 결정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그가 (내년 시즌) 불박이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었다.

추신수는 올 시즌 총 94경기에서 나와 타율 0.309에 홈런 14개, 안타 98개, 타점 66점 등을 기록하며 팀내 위상을 확고히 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새 시즌 준비 끝"

갈라쇼 프로그램 확정

김연아(18·군포 수리교)가 새로운 갈라쇼 프로그램을 확정하면서 2008-2009 시즌 '피겨퀸'에 오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지난달 30일 "이번 시즌 새로운 갈라쇼 프로그램의 배경 음악으로 미국의 배우 겸 가수 린다 에더가 2002년 발표한 '골드(Gold)'를 선택했다"며 "이번 시즌부터 사용했던 '온리 호프(Only hope)'와 번갈아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린다 에더는 김연아가 갈라쇼 프로그램으로 사용했던 '원스 어폰 어 드림(Once upon a dream)'을 불렀던 가수로 국내 피겨 팬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이다.

이로써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인 생방송의 교향시 '죽음의 무도'와 프리스케이팅

대구은행 나윤경 한국신 女 일반 50m 소총3자세

경찰청장기 사격

프로그램인 립스코르사코프의 '세레라 자데'에 이어 갈라쇼 프로그램까지 완성하면서 새 시즌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IB스포츠는 "이번 시즌 첫 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몇 개의 곡을 놓고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안무가인 데이비드 윌슨의 추천곡을 선정하게 됐다"며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안무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선수의 부담을 줄이려 했다"라고 곡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연아도 새 갈라쇼 프로그램에 대해 "새로운 곡인 '골드'는 '온리 호프'와 비교할 때 클라이맥스도 확실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힘이 있고 웅장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안무가 윌슨 역시 "김연아의 예술적 감수성을 가장 잘 표현하면서 동시에 갈라쇼 프로그램답게 관객이 더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곡을 선택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나윤경(대구은행)이 제17회 경찰청장기 사격대회에서 한국신기록으로 우승했다. 나윤경은 대회 3일째인 지난달 30일 태릉사격장에서 열린 여자일반 50m 소총3자세에 출전, 본선에서 587점을 쏜 뒤 결선에서 100.6점을 기록해 총점 687.6점으로 1위에 올랐다.

가온 한곡기록(687.1)을 0.5점차로 앞선 이번 대회 첫 한국신기록(장애인 부문 제외)이다.

2위는 682.1점을 쏜 공현아(부산시청)가, 3위는 678.3점을 기록한 김미선(기업은행)이 각각 차지했다.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주희(죽지오엠씨)는 혼성장애인 25m 권총에서 우승, 3관왕에 올랐다.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 대607/건1,352 보36억/월 3,000만원. 땅: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3,421㎡(1,050평) 3.3㎡당 700만원.

금보부동산컨설팅. 산당매매: 동구 신수동 38㎡(11평) 164세 매가 6억 5,000만원. 건물매매: 남구 봉곡동 148㎡(234평) 1층 3층 3층 소복도로 4차선 매가 1억 1,900만원.

대승공인중개사. 토지구획: 수원지구 333-1(영의변경가능) 60미터 대로변 상업용지, 3면도로. 수완지구: 수원지구 333-1(영의변경가능) 60미터 대로변 상업용지, 3면도로.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토지구획: 수원지구 333-1(영의변경가능) 60미터 대로변 상업용지, 3면도로. 건물매매: 27억 (보증금 3억5천 원) 19억 (보증금 1억5천 원).